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수사일보

정치일보

제 525 호 대표전화 (062) 373-6448

(음력 4월 24일)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광주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속도낸다"

민관협력 2024년까지 동구 구도심에 인프라·서비스 구축

스마트 주차·에너지·환경·안전시설 설치로 도시문제 해결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동구 구도심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지역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과 전국 확산을 위해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 조성 확산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속도를 내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 동구, 광주도시공사,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등 민·관이 협력해 오는 2024년까지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4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허브 구축 ▲스마트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조성 등이다.

스마트 교통 서비스는 동구 내 26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설비를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현황 및 주차정보 등 스마트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분산 운영 중인 5개 자치구 스마트주차 정보를 연계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충전·거래 거점센터로 동구 서석동 공영주차장에 'RE100 메가스테이션'을 구축해 전기차(EV)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거래, 공급인증서(REC) 발급 지원 등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 환경 서비스는 페트(PET), 캔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지능형 자원순환 수거기 27대를 13곳에 설치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포인트 보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트 안전 서비스는 동구지역 22곳에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과 스마트폴을 설치해 시민 안전·실종자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에는 보행자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17개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이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신산업 창업기업 실증 지원, 시민체험 복합공간 등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한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구도심의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주차 불편, 쓰레기 재활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 충전 및 거래 인프라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서비스를 구축해 넷-제로(Net-Zero) 광주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기아 AutoLand광주, '2023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

지역사회 성장세대 육성 위해 10년째 후원

기아가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기아 AutoLand광주 (공장장: 박래석)은 최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재능 육성을 위한 '2023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 AutoLand광주에서 10년째 후원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 기아챌린지는 드림 토크&문화콘서트, 어린이 국악난타, 찾아가는 예술랜드, 수상한 과학교실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드림 토크&문화콘서트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 비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콘서트는 올해 총 6회 진행될 예정으로 광주지역 청소년 약 3천6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국악난타는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의 기회가 적은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퓨전국악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40명을 선발해 난타 교육을 실시하며, 12월 제작 발표회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예술랜드는 문화소외계층 아동 대상 레크리에이션 및 샌드아트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5개 지역아동센터 300명의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수상한 과학교실은 국립광주과학관과 연계해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회 진행해 26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후원금 전달 행사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숭의중학교에서 진행됐으며, 기아 AutoLand광주 서성철 총무팀장이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직복지과 양규현 과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은영 광주지역본부장, 숭의중학교 김홍식 교장에게 후원금 1억 6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숭의중학교 학생 540여명과 함께 제 1회 드림 토크&문화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초청된 멘토는 방송출연과 강연 등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시인이자 가수인 하상욱씨로 강연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능을 극복하지 않는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웹디자이너로 일하다 우연히 SNS에 올린 네줄 시로 'SNS 시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하상욱 멘토는 자신의 짧은 시에 담긴 다양한 풍자와 반전의 묘미처럼 즐겁고 유쾌한 강의를 전했다.

이어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웹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부터 SNS에 시를 올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까지 과정, 그리고 음원 출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하상욱 멘토가 생각하는 꿈과 재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드림 토크&문화콘서트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기아 관계자는 "기아챌린지 사업을 통한 경험이 지역 아동,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기아 AutoLand광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AutoLand광주는 지난 2014년부터 '기아챌린지 사업'을 진행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으며, 올해까지 총 13억 3천만원을 후원했다. /이문수 기자

사진 왼쪽에서부터 숭의중학교 김홍식 교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김은영 본부장, 기아 AutoLand광주 서성철 총무팀장, 광주광역시 교육청 조직복지과 양규현 과장. /기아 제공